

마태 11

- 1. 침례자 요한이 왕께 사자들을 보냄.....1
- 2. 왕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저주하심.....3
- 3. 왕께서 참된 안심을 주심.....4

1. 침례자 요한이 왕께 사자들을 보냄

(마 11:1) 예수님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.

(마 11:2)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

(마 11:3) 그분께 이르되,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,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니까? 하니

(마 11:4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

(마 11:5)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, 하라.

(마 11:6)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, 하시니라.

(마 11:7) ¶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,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?

(마 11:8)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?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? 보라,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.

(마 11:9)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? 대언자냐? 그러하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.

(마 11:10) 기록된바, 보라, 내가 내 사자를

(눅 7:18)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.

(눅 7:19) ¶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,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?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니까? 하라, 하매

(눅 7:20)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, [침례자]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,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?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니까? 하더이다, 하니라.

(눅 7:21)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.

(눅 7:22)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.

(눅 7:23)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, 하시니라.

(눅 7:24) ¶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,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?

(눅 7:25)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?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? 보라,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

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,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.

(마 11:11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[침례자]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.

(마 11:12) [침례자]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.

(마 11:13)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

(마 11:14)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.

(마 11:15)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

(마 11:16) ¶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?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

(마 11:17) 이르기를,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,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.

(마 11:18)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, 그가 마귀 들렸다, 하더니

(마 11:19) 사람의 [아들]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, 보라, 음식을 탐하는 자요,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,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, 하는도다.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, 하시니라.

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.

(눅 7:26)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? 대언자냐? 그러하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.

(눅 7:27) 기록된바, 보라,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,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.

(눅 7:28)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[침례자]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. 그러나 [하나님]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, 하시니라.

(눅 7:29)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[하나님]을 의롭다고 하되

(눅 7:30)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[하나님]의 계획을 거절하더라.

(눅 7:31) ¶ 또 [주]께서 이르시되,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?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?

(눅 7:32)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,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,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.

(눅 7:33) [침례자]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, 그가 마귀 들렸다, 하더니

(눅 7:34) 사람의 [아들]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, 보라, 음식을 탐하는 자요,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,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! 하는도다.

(눅 7:35)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, 하시니라.

2. 왕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저주함

(마 11:20) ¶ 그때에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.

(마 11:21) 고라신아,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! 벳새다야,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!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 전에 굶은 벼룩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.

(마 11:22)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.

(마 11:23) 가버나움아,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. 네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 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.

(마 11:24)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.

(눅 9:1)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의 열두 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

(눅 9:2) [하나님]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

(눅 9:3) 그들에게 이르시되,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. 지팡이들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덧옷도 두벌 취하지 말라.

(눅 9:4)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.

(눅 9:5)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여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, 하시니

(눅 9:6)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.

(눅 10:13) 고라신아,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! 벳새다야,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!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 전에 굶은 벼룩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.

(눅 10:14)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.

(눅 10:15) 가버나움아,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.

3. 왕께서 참된 안식을 줌

(마 11:25) ¶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, 오 하늘과 땅의 [주]이신 [아버지]여,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.

(마 11:26) 과연 그러하옵나이다. [아버지]여,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.

(마 11:27) 내 [아버지]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[아버지] 외에는 아무도 [아들]을 알지 못하고 [아들]과 또 [아들]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[아버지]를 알지 못하나이다.

(마 11:28) ¶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, 너희는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.

(마 11:29)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.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

(마 11:30)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, 하시니라.

(눅 10:21)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, 오 하늘과 땅의 [주]되시는 [아버지]여,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. 과연 그러하옵나이다. [아버지]여,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.

(눅 10:22) 내 [아버지]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[아버지] 외에는 아무도 [아들]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[아들]과 또 [아들]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[아버지]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, 하시니라.